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동향분석실

I.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 개관

2024년 상반기는 코로나19 이후 상당 기간 이어진 노동시장의 회복세가 한풀 꺾이고 있음을 확인한 시기였다. 2023년 상반기 37만 명 수준이었던 취업자 증가폭은 당해 하반기에 28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22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특히, 5월에는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 조짐이 처음 발현된 2021년 3월 이후로부터 근 39개월 만에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 이하로 낮아졌으며, 6월에도 전월대비 소폭 확대되는 데 그쳤다. 더불어, 실업자 증가폭은 확대되고,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2023년 양적지표를 통해 나타났던 고용의 긍정적 신호들이 2024년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p, 전년동기대비)

	반기			분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취업자	372	283	220	303	294	146
실업자	-77	-15	59	8	42	76
비경활	-154	-115	-113	-150	-171	-55
고용률	0.6	0.4	0.3	0.4	0.4	0.1
실업률	-0.3	-0.1	0.2	0.0	0.1	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KOSIS.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은 성별로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남성 고용률이 감소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였는데, 일하는 여성이 늘어난 것이 전체 고용률의 증가를 견인하게 되었다. 2023년 이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 고용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위주의 취업자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그 증가 수준에 있어서는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상반기 여성 고용률의 증가폭은 2023년 1.4%p에서 2024년 0.7%p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세부 연령대별 양상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고용 부진과 고령층의 고용 증가세가 뚜렷하게 대비되어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 연령대의 경우, 인구 및 전체 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인구효과에 의해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반면, 60대의 취업자 증가폭은 최근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큰 취업자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 양상으로는 올해 상반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둔화세, 건설업 부진의 심화가 가장 두드러졌다. 제조업은 2023년부터 시작된 고용 둔화세가 2024년 상반기까지 이어졌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등 글로벌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반도체 수출과 생산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제조업 경기는 부진에서 벗어났으나, 고용은 반등하지 못했다. 건설업 고용은 건설 경기 둔화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상용직 근로자까지 감소하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분기별로 확대되어 취업자 수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다. 서비스업의 고용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대면 서비스업은 소폭의 취업자 증가폭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비대면 서비스업 역시 업황에 따라 고용이 둔화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상 간략히 살펴본 노동시장의 부문별 상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미취업자 동향을 통해 경제활동참여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취업자 동향은 연령,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이후 결론에서는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에 기반하여 우리 원의 하반기 고용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2024년 상반기 부문별 노동시장 평가

1. 중고령층 중심으로 실업률 증가

2024년 상반기 실업률은 3.1%로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2024년 들어 실업률이 다시 소폭 증가했다. 2023년 연평균 실업률(2.7%)이 1999년 실업률 통계 개편(구직기간 4주 기준)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음을 고려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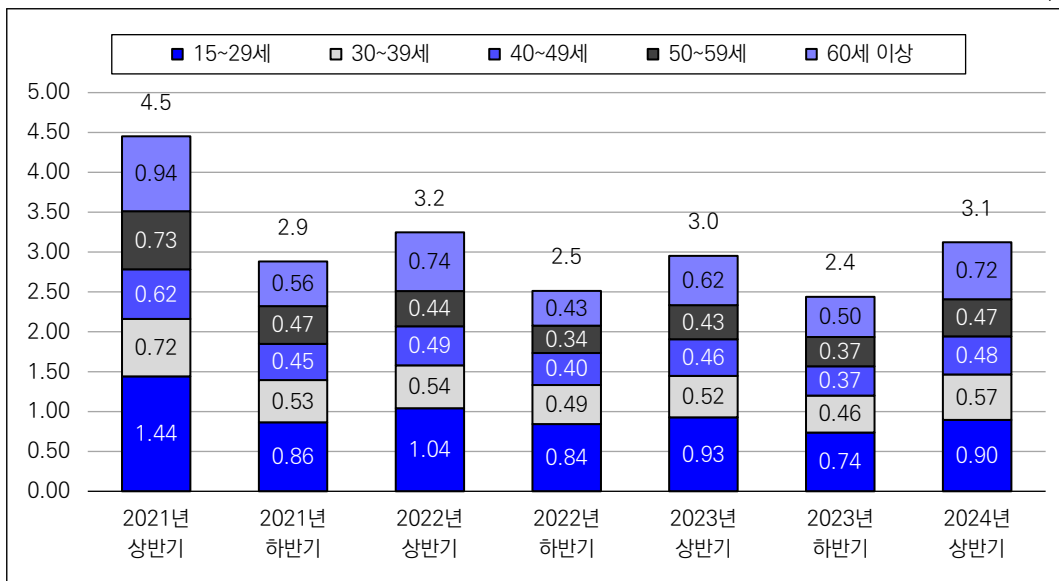
실업률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4년 실업률 3.1% 중 0.9%p가 청년층(15~29세)에서

발생했는데 2023년 상반기에 비하면 비중이 다소 줄었다. 반면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작년보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60세 이상 실업자는 2024년 상반기 21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만 명이 증가했다. 실업자의 정의에 따라, 현재 취업을 희망하며 지난 4주간 구직행위를 하고 있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이다.

2023년 이전에는 60세 이상 실업률이 매년 초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기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특성상 노인일자리사업 구직 접수를 매년 초에 받았기 때문이다. 2023년 이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기간을 늘리면서 특정 시기에 신청이 몰리는 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고령층의 실업률이 소폭 증가하는 것은 민간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전체 실업률에서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p)



주 : 각 연령대 실업자 수를 전체 경제활동인구수로 나누어 실업률에서 각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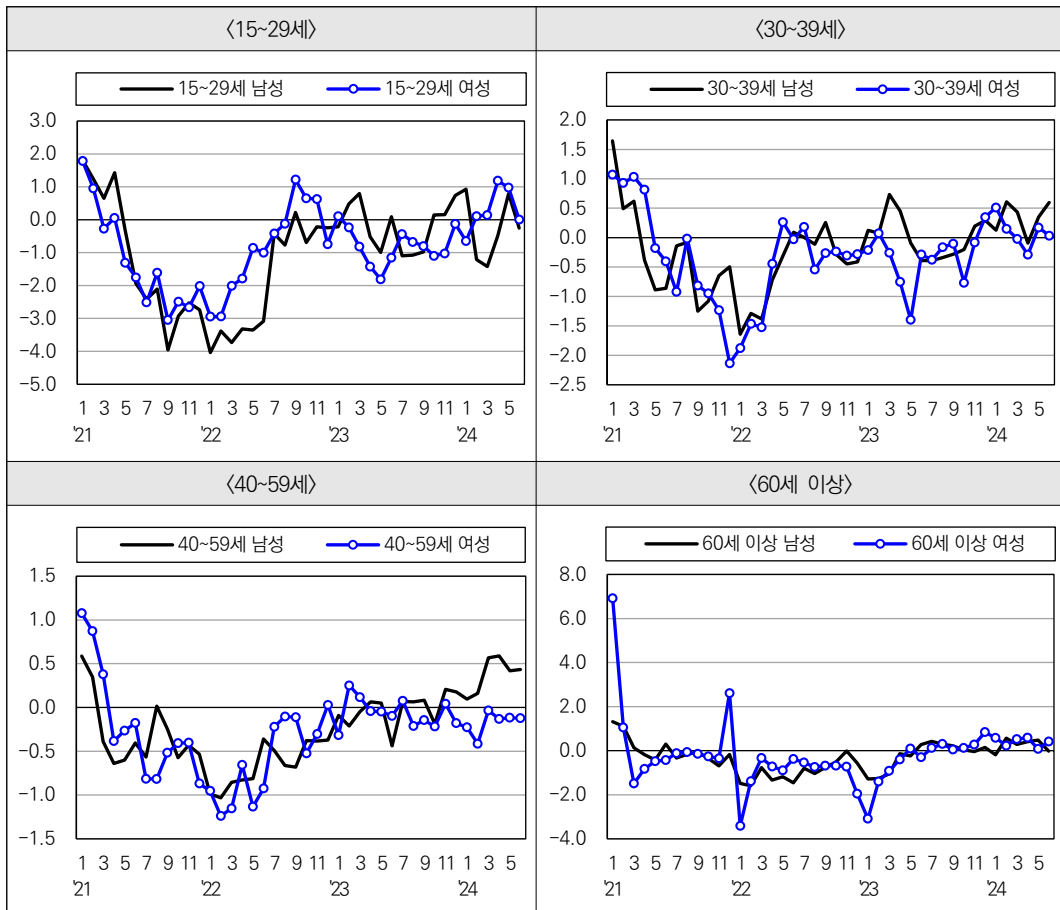
6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별 실업률 변화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23년에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여성 실업률이 감소하면서 여성 중심의 고용 회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청년층 여성 실업률이 소폭 증가했는데, 2024년 2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0.8%p 증가하였다. 남성 실업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에 비해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59세 남성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했는데, 2023년 상반기 1.8%에서 2024년 상반기 2.2%로 증가하여 여전히 낮은 실업률이 일부 반등한 결과이므로 하반기에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 중 일을 그만둔 기간이 1년 미만인 실업자(이하 '전직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전 직장(사업체)의 업종, 지위 등 전직 관련 정보를 설문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증가한 실업자 5.9만 명 중 전직 실업자는 3.1만 명이다. 전직 업종으로는 정보서비스, 금융보험업 등 비대면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종사했던 전직 실업자가 증가했다. 정보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고용이 증가하고 있어 전직 실업자가 취업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건설업은 업황과 고용이 침체되어 전직 실업자의 실업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직 실업자의 전직 정보에는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있는데, 육아 및 가사, 심신장애, 정년퇴직 등 개인 여건으로 퇴직한 전직 실업자와 임금 및 근로시간 등 작업 여건이 불만족스러워 퇴직한 전직 실업자는 전년과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직장의 휴·폐업, 정리해고, 사업부

[그림 2] 연령대별/성별 실업률 증감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진 등 직장 여건에 따라 퇴직한 전직 실업자는 1.6만 명 증가했다. 또한 임시직이거나 계절적 업무가 종료되어 실업자가 된 사람은 1.5만 명 늘어났다. 전직 실업자가 직장 여건, 계절적 업무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업종별 경기상황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쉬었음' 인구 중 '취업비희망자' 증가

2024년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인구)는 전년동기대비 11.3만 명 감소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비경활인구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활동상태별로 살펴보면, '육아 및 가사'를 하고 있는 비경활인구가 8.6만 명 감소했다. 점차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고,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이 늘어나면서 비경활 인구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면서 '연로' 사유의 비경활인구가 늘었다. '쉬었음' 사유의 비경활인구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분기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반기			분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154	-115	-113	-150	-171	-55
- 육아·가사	-150	-132	-86	-124	-84	-89
- 통학	58	27	-45	6	-31	-59
- 취업준비	-99	-77	-47	-63	-38	-55
- 연로	-112	49	86	71	70	103
- 쉬었음	134	14	19	-42	-46	84
- 나머지	15	3	-41	1	-42	-39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49	-51	-110	-84	-108	-112
- 육아·가사	-4	-3	-14	-9	-14	-15
- 통학	36	24	-42	6	-24	-59
- 취업준비	-86	-57	-30	-40	-24	-36
- 쉬었음	26	-4	-13	-25	-38	13
- 나머지	-20	-11	-12	-16	-9	-15

주: 1) 통학은 정규교육기관 통학, 입학원 통학 및 진학준비 사유를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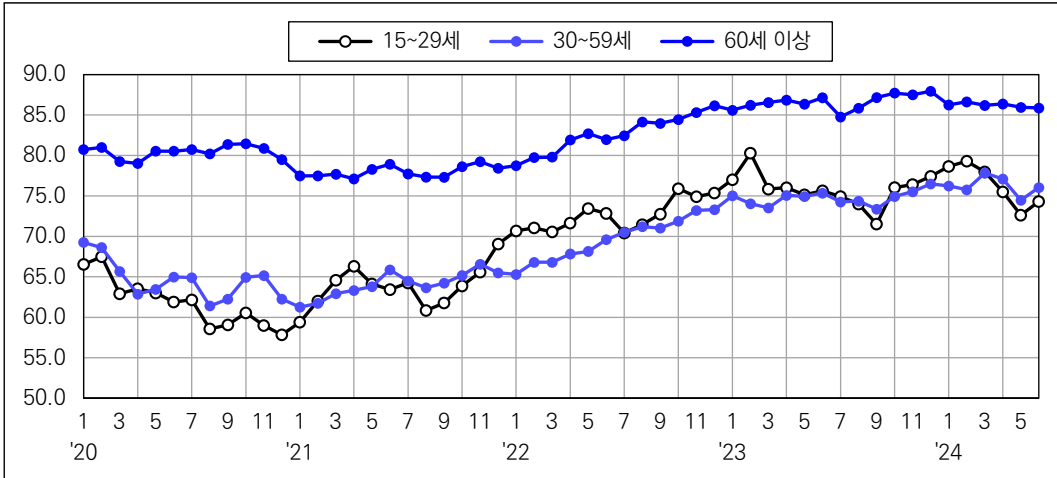
2)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및 취업준비 사유를 포함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11만 명 감소했다. 청년층은 전체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상태의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학(정규교육기관)과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는 등 '취업준비'를 이유로 비경제활동 중인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3] '쉬었음' 사유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비희망자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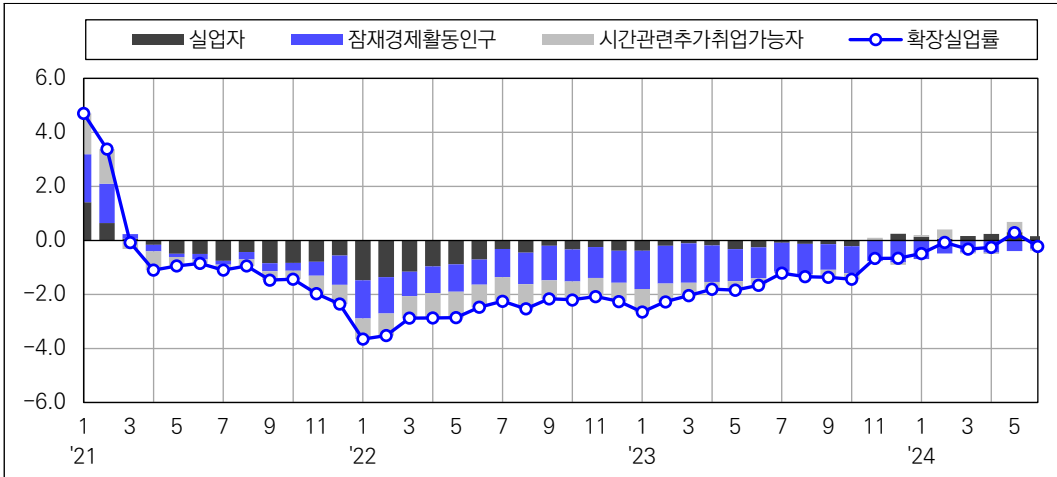
(단위: %)



주: 비경제활동인구 중 현재 활동상태를 '쉬었음'으로 응답한 자 중에서 '지난주에 직장을 원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원하지 않았음'으로 응답한 자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의 추이와 각 구성 요인의 변동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주: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 및 잠재구직자의 합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쉬었음’ 사유의 비경활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비경활인구 중 잠재구직자 식별과 확장실업률(고용보조 지표3) 산출을 위해서 지난주에 직장을 원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이 중 ‘원하지 않았음’으로 응답하는 경우 잠재구직자로 분류되지 않고 ‘취업비희망자’로 정의할 수 있다. ‘쉬었음’ 사유의 비경활인구 중 취업비희망자의 비중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2024년 상반기 ‘쉬었음’에 속하는 244.4만 명의 비경활인구 중 80.7%가 취업비희망자였다. 청년층 비경활인구 41.2만 명 중 취업비희망자는 31.5만 명으로 76.4%에 달했다. 이러한 취업비희망자 비율이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취업비희망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비율이 증가하지 않도록 취업비희망자들을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유인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확장실업률은 2024년 상반기 9.3%로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했다. 확장실업률 감소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데, 주로 실업률과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의 감소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하반기 실업률의 소폭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잠재구직자의 증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시간관련추가취업자가 늘어난다면, 하반기에는 확장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3. 청년층 고용의 상대적 부진

20대 위주로 청년층 고용지표 변화를 살펴본다. 2024년 상반기 20대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9.2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감소폭이 늘고 있지만, 20대 취업자 감소분 중 상당 부분은 인구효과에 의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그림 5 참조). 즉, 인구효과에 의해서만 20대 취업자가 11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고용률은 상반기로 보면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하면서 나쁘지 않은 실적이지만, 월별로 보면 5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최근 고용률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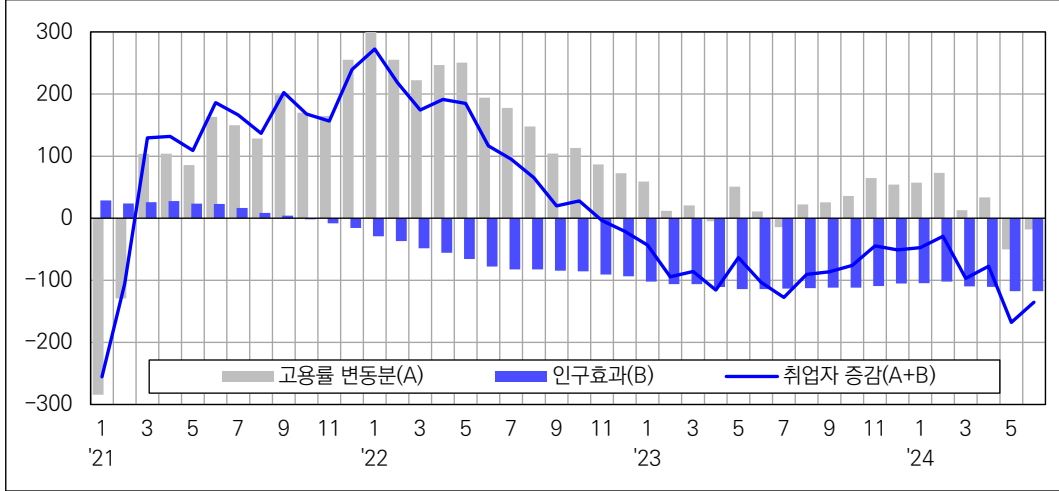
20대 초반(20~24세)과 20대 후반(25~29세)을 구분해서 산업별로 취업자 증감 변화를 살펴보면, 많은 산업에서 취업자가 감소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산업별 취업자 감소에는 인구감소의 영향이 섞여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0대 초반 청년층의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 증가는 2024년 상반기에도 계속됐다. 그러나 그 외의 산업에서는 대부분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컸는데, 이는 주로 여성 취업자가 감소한 결과였다. 20대 초반 여성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중 상당수는 간호인력에 해당한다. 이 산업의 취업자 감소가 2023년 하반기에 이어 계속 관찰되고 있다. 인구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여성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여성 간호인력 고용 상황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20대 후반 청년층의 취업자 감소는 주로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위주였다. 반

[그림 5] 20대 취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 결과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20대 세부연령별·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4세				25~29세			
	2024년 상반기	분기			2024년 상반기	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전 체	-63	-27	-52	-75	-29	-30	-5	-52
농림어업	7	0	7	7	3	-1	2	5
제조업	-34	-32	-30	-38	18	13	29	7
건설업	1	11	7	-6	-14	4	-4	-25
도소매업	-18	-8	-20	-17	-8	-33	-10	-5
운수창고업	2	0	4	0	4	-2	6	2
숙박음식점업	28	17	23	33	-7	-22	-15	0
정보통신업	-7	-12	-5	-9	21	59	32	10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16	-13	-20	-12	3	-7	0	6
공공행정	2	0	0	4	8	-6	8	8
교육서비스	1	7	6	-4	-26	-27	-27	-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	-29	-22	-29	-29	-27	-18	-30	-23
예술·스포츠	4	24	5	3	1	9	3	-1
협회·개인서비스	1	9	3	-1	-9	-6	-7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에는 업황이 나쁘지 않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분야의 여성 20대 후반 취업자 증가가 눈에 띈다.

다음으로 졸업 여부별로 청년 취업자를 구분하여 그 변화를 살펴본다. 재학 중인 청년 취업자는 아르바이트 접근성이 높은 내수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의 취업자 비중이 높다. 20대 초반 재학 청년 중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5.1만 명 증가했다. 나머지 산업에서 20대 초반 재학 청년 취업자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다. 20대 후반 재학 청년은 20대 초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취업자 수 변화도 크지 않다.

다양한 최종학력 졸업자가 발생하는 20대 후반 연령대를 중심으로 졸업 청년의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졸 이하 청년층은 2분기 고용률이 전년동기에 비해 1.6%p 증가했다. 이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내수서비스업의 고용 상황이 양호한 영향이 일부 반영됐다. 초대졸자의 고용률 감소는 간호인력을 포함한 청년층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감소에서 비롯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20대 후반 대졸 이상 청년 고용률은 0.3%p가 감소했다. 건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고용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 4> 20대 후반 졸업자 학력별 고용률 수준 및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수준				증감			
	전체 졸업자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전체 졸업자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2023년 4분기	77.2	72.9	81.8	77.2	0.3	-0.6	2.9	-0.4
2024년 1분기	77.2	74.1	81.2	76.9	0.8	0.9	1.5	0.7
2024년 2분기	77.1	74.8	79.6	76.9	-0.3	1.6	-1.9	-0.3

주: 수학 여부 변수 답변 중 '재학', '휴학'을 재학자로, '졸업', '중퇴'를 졸업자로 분류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0대는 상반기 취업자 수가 9.1만 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분 전체가 인구효과와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인구변화가 없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30대 후반(35~39세) 여성을 중심으로 참가율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2021년 1월에 비해 10%p 가까이 참가율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여성 고용률도 증가하면서 30대 고용지표를 전반적으로 개선시켰다. 반면, 30대 남성 취업자는 5천 명 감소했고 고용률도 감소 중이다. 여성 취업자가 9.6만 명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30대 남성 고용은 여성 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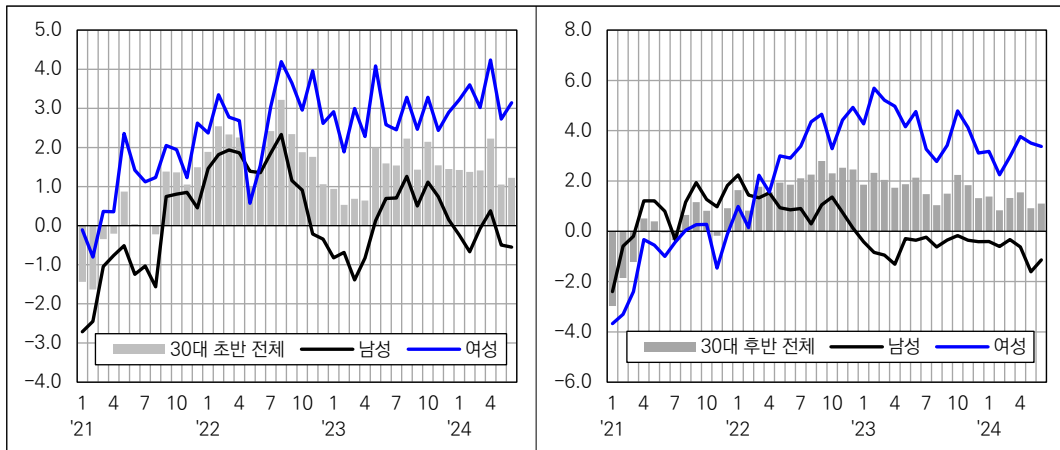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30대 여성 취업자는 주로 어떤 산업에서 늘었는지, 30대 남성 취업자는 어디서 줄어들고 있는지 알아본다. 먼저, 30대 여성 취업자는 서비스업 위주로 증가 중이다. 공공행정,

전문과학, 정보통신업 순으로 30대 여성 취업자 수 증가폭이 컸다. 30대 초반 여성 취업자는 정보통신업에서 2만 명, 숙박음식점업에서 1.6만 명, 공공행정에서 1.6만 명이 증가했다. 30대 후반 여성 취업자는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1.7만 명이 늘었다.

30대 남성 취업자 감소는 주로 도소매업, 운수창고업에서 나타났다. 도소매업에서 4.5만 명, 운수창고업에서 2.5만 명 취업자가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에서는 30대 남성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30대 남성 취업자 전체 감소폭은 5천 명으로 비교적 작았다.

[그림 6] 30대 초반(30~34세, 좌), 후반(35~39세, 우) 연령대 성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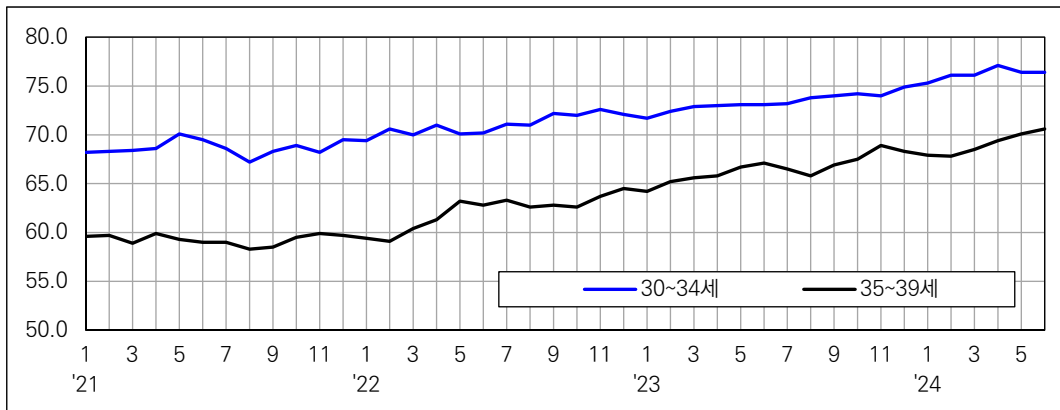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30대 주요 산업별·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30대 남성				30대 여성			
	2024년 상반기	분기			2024년 상반기	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3 3분기
전 체	-5	-11	-5	-5	96	96	87	104
제조업	10	-25	2	19	-12	13	-10	-14
건설업	29	11	33	25	-1	5	-1	-2
도소매업	-45	-35	-44	-46	4	12	3	6
운수창고업	-25	-30	-22	-29	11	3	8	14
숙박음식점업	-2	32	-3	-1	14	20	17	11
정보통신업	0	-1	-4	3	20	6	17	23
금융보험업	13	4	7	18	-3	9	2	-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6	10	18	14	21	7	20	23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9	15	-4	-13	20	-5	16	25
공공행정	-1	4	0	-2	25	25	26	23
교육서비스	6	2	2	10	-16	-13	-17	-15
보건사회복지서비스	5	24	14	-5	-10	-7	-20	0
협회·개인서비스	-9	-10	-16	-1	17	11	19	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0대는 상반기 취업자가 8.2만 명 감소했는데, 대부분 인구효과에 의한 것이었다. 인구 감소 폭이 취업자 감소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전체 고용률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취업자 수 변화 요인을 분해한 결과는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모든 요인에 의해 취업자가 감소했고, 여성은 인구효과가 취업자를 줄이고 있는 반면, 인구효과를 제외하면 취업자가 늘고 있었다. 이에 따라 40대 남성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은 증가 중이다. 30대와 마찬가지로 여성 노동시장 상황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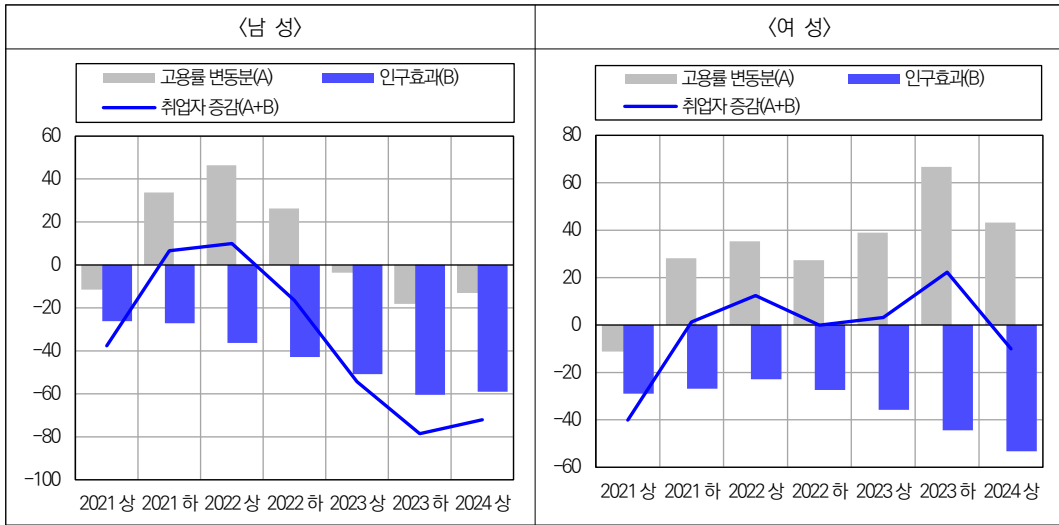
2024년 상반기에 50대 인구는 70.9만 명, 취업자는 43.1만 명이 증가했다. 인구수 증가와 연령대별 인구 비중 증가가 모두 나타나면서 인구효과에 의한 취업자 수 증가가 관찰된다. 인구효과를 제외한 취업자 수는 2분기에 감소로 전환됐으며, 고용률도 상반기에는 0.1%p가 감소했다. 과거에는 50대의 고용 증가폭이 60대의 취업자 수 증가폭과 유사한 때도 있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줄어들었고 고용률도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50대 고용 상황을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남성 50대 취업자는 이 연령대 남성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증가 중이다. 건설업에서는 최근 급격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났다. 50대 남성 건설업 취업자는

1분기에 1.4만 명이 감소했고, 2분기에는 5.4만 명으로 감소폭이 대폭 늘어났다. 향후 건설업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감소폭이 더 늘어날 위험도 있다. 여성 50대 취업자는 보건사회복지서
 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그림 8] 40대 성별 취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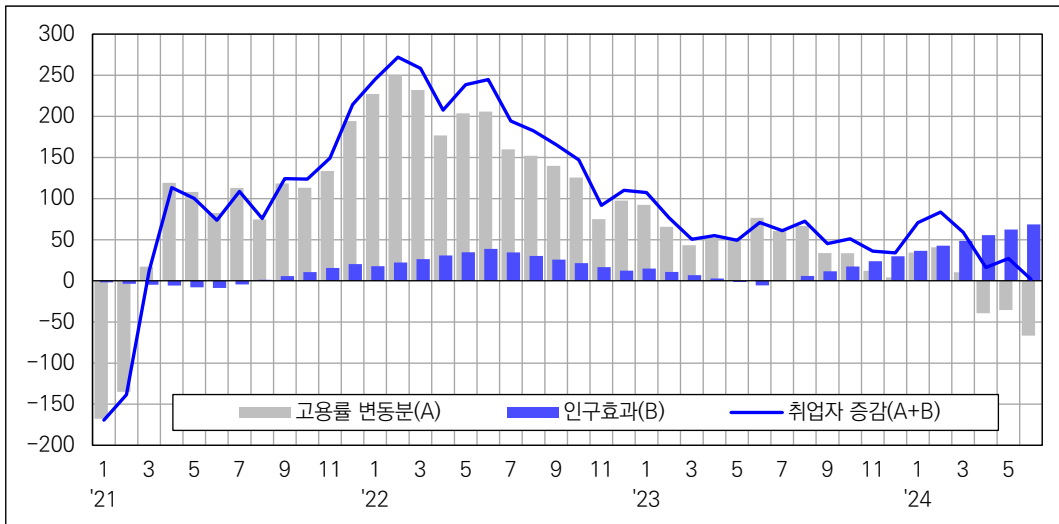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9] 50대 취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 결과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특집 II]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표 6> 50대 주요 산업별·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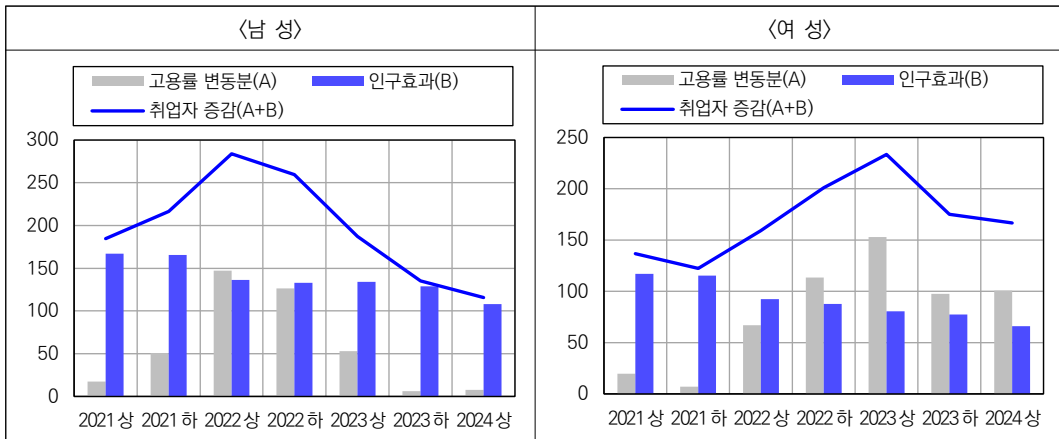
	50대 남성				50대 여성			
	2024년 상반기	분기			2024년 상반기	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전 체	27	30	37	17	16	10	34	-2
농림어업	-11	-3	-6	-15	-10	-13	-12	-9
제조업	68	28	55	81	-18	-22	-26	-10
건설업	-34	-9	-14	-54	24	26	28	21
도소매업	36	16	29	42	-16	27	3	-35
운수창고업	44	23	37	52	-6	-8	-5	-8
금융보험업	-16	-5	-16	-16	-7	-1	-8	-5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20	4	-18	-21	-17	-2	-17	-18
공공행정	-32	-29	-24	-39	13	7	17	8
교육서비스	-15	-19	-16	-14	13	-15	14	11
보건사회복지서비스	-10	-5	-13	-7	47	26	47	4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 향방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일자리사업 영향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2024년 상반기에도 이러한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인구효과에 의해 취업자가 크게 증가 중이고, 직접일자리사업 종사자로 간주할 수 있는 65세 이상 임시직, 공공행정 및 보건사회

[그림 10] 60대 성별 취업자 수 변화 요인 분해 결과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복지서비스업 관련 취업자도 증가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취업자 증가, 안정적인 고용률 증가세,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진출이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층 성별 고용 상황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성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인구효과에 의한 것이다. 반면, 여성은 인구효과를 제거하고도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 65세 이상 임시직, 공공행정 및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여전히 크게 늘고 있지만 남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4. 상용직 증가폭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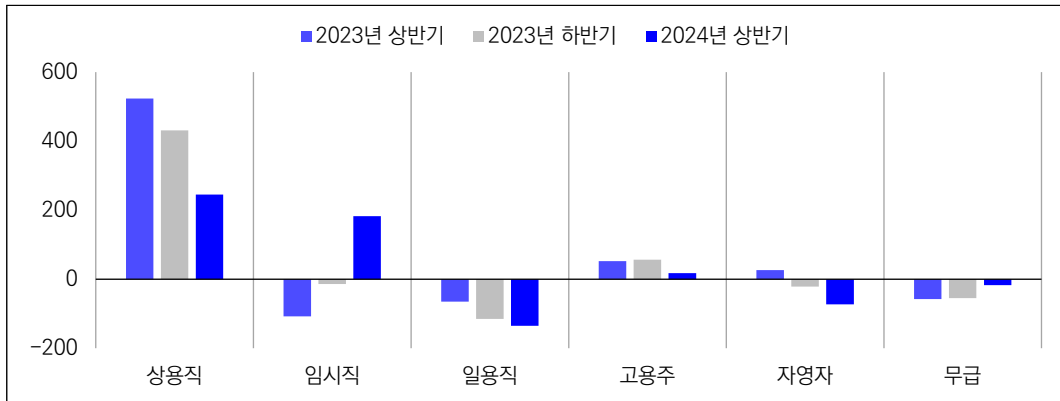
2024년 상반기에는 상용직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2023년 상반기 상용직 증가폭이 52.4만 명이었던 반면, 2024년 상반기 상용직 증가폭은 24.5만 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증가폭도 줄어든 것이다. 상용직 변화와는 다르게 임시직은 크게 늘었다. 건설업 비중이 높은 일용직은 감소세를 더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가 눈에 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상용직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었다. 2023년 상반기 20만 명에 이르던 상용직 증가가 2024년 상반기에는 0.7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고령층 상용직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고령층이 아닌 연령대에서 고용 규모가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상용직의 증가폭도 축소되었다. 건설업은 상용직도 줄었고 고용 비중이 높은 일용직도 크게 감소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서비스업의 상용직은 오랜 기간 증가 중이며 상반기 증가폭도 여전히 컸다.

임시직은 다양한 산업에서 증가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간병인력이 다수 포함되는 보건사회

[그림 1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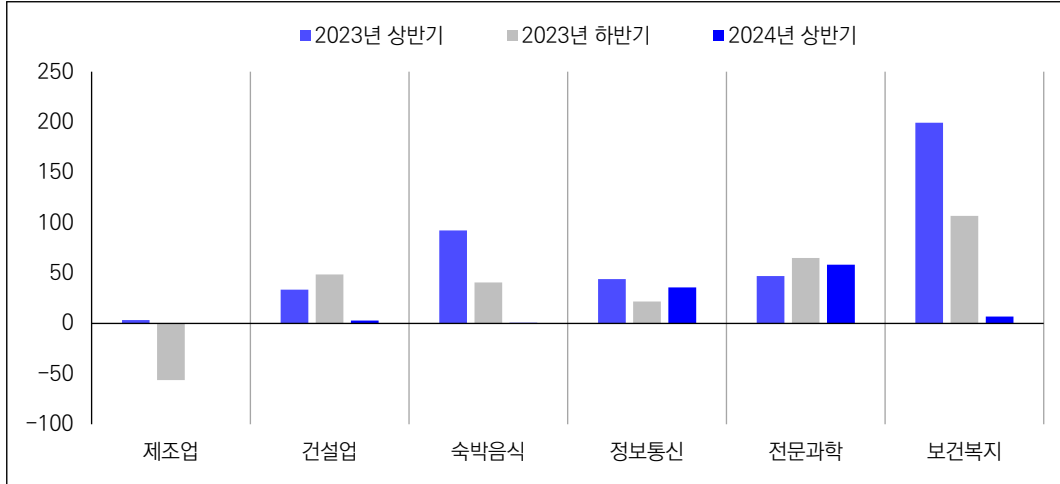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2] 상용직 산업별 취업자 증감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복지서비스업의 임시직이 가장 많이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역시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임시직도 늘어나면서 전체 임시직 증가 규모를 키웠다. 일용직은 건설업,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에서 주로 감소 중이다. 건설인력, 파견인력 등의 감소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7.3만 명이 감소했다. 도소매업, 농림어업 등에서 자영업자가 주로 감소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사업자 폐업 신고가 98만 건에 달하였는데, 이는 2006년 통계 집계 후 가장 많은 건수였다. 사업자 변화와 자영업 고용 통계가 일치하기는 어렵지만, 늘어난 폐업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고용 통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증감폭이 작기 때문에 특징적인 변화를 찾기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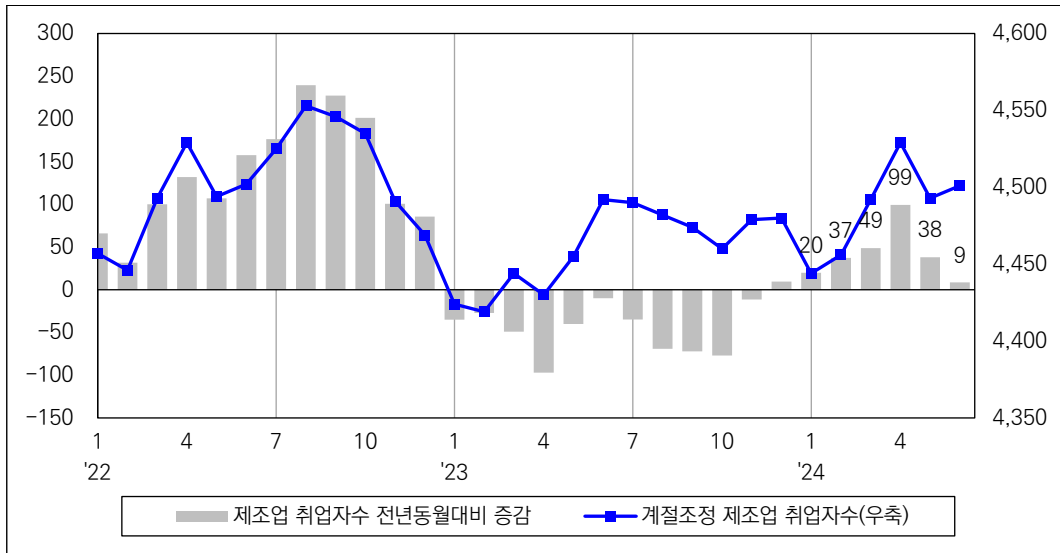
5. 제조업 고용 둔화세 지속

제조업 취업자는 1분기에 3만 6천 명 증가하고, 2분기에 4만 9천 명 증가하였다. 수치상 제조업 취업자는 매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하였지만 이것이 제조업 고용 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의 고용은 성장보다는 지난해 고용 흐름을 유지한 것에 더 가깝다. [그림 13]에 나타나듯 상반기 제조업 고용 흐름은 지난해 상반기와 매우 유사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취업자 증가에는 지난해 취업자가 감소한 기저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전월대비 계절조정 취업자 수도 상반기 중에 대체로 증가하였지만(그림 13의 실선), 2023년 취업자 감소 규모를 회복한 정도이다. 2024년 6월 기준 제조업 계절조정 취업자(약 450

만 명)는 2023년보다 약 4만 명 많은 수준이며, 2022년 제조업 취업자와 같은 수준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나 사업체 종사자 수 자료를 보아도 올해 상반기 제조업 고용 상황이 전년보다 개선된 조짐은 나타나지 않는다. 두 자료에서 제조업 고용은 전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해 상반기 6만 3천 명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증가폭이 1/3 수준으로 축소되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7천 명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내국인) 증가폭도 2023년 중 상당폭 축소되었고, 2023년 10월에 전년동월대비 감소로 전환된 이후로는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제조업 고용이 지난해 고용 흐름을 유지한 것은 결국 지난해 부진했던 제조업 고용 상황이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3] 제조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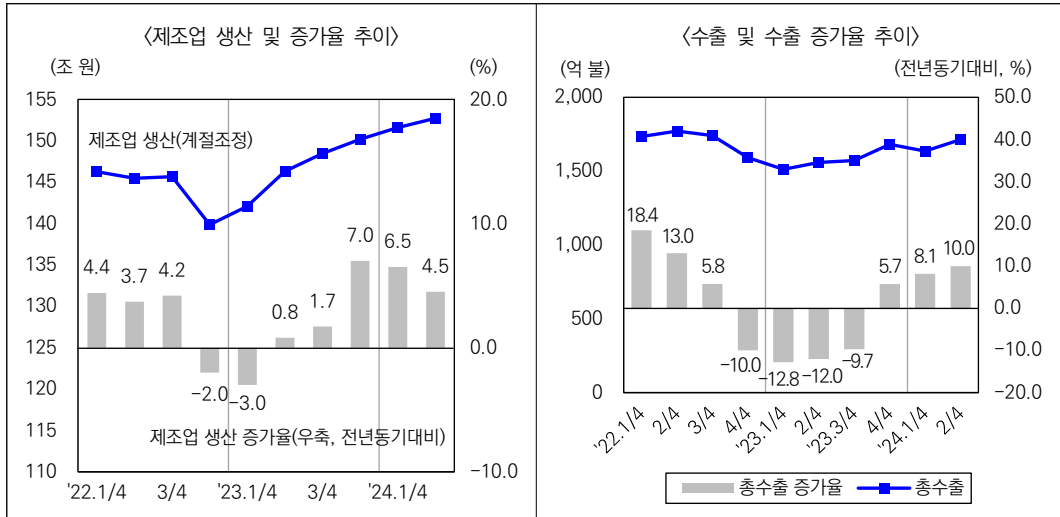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24년 상반기 제조업 경기는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개선되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수출 위축에 따른 제조업 경기 부진이 이어졌으나, 4분기 이후 수출이 회복되면서 제조업 경기 부진도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올해 들어 수출 증가율은 더욱 확대되어 1분기에 8.0%, 2분기에 10.0%가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업(ICT) 수출이 크게 상승했고, 자동차(하이브리드차), 바이오헬스 등 비ICT 부문에서도 다수 품목이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글로벌 IT 경기 상승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도 늘어나 제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생산, 수출 등 올해 상반기 제조업 경기 지표들은 호조를 보였음에도 제조업 고용 지표는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조업의 세부 업종 중 고용 증가세를 이어간 업종은 식료품

[그림 14] 제조업 생산 추이(좌), 수출 추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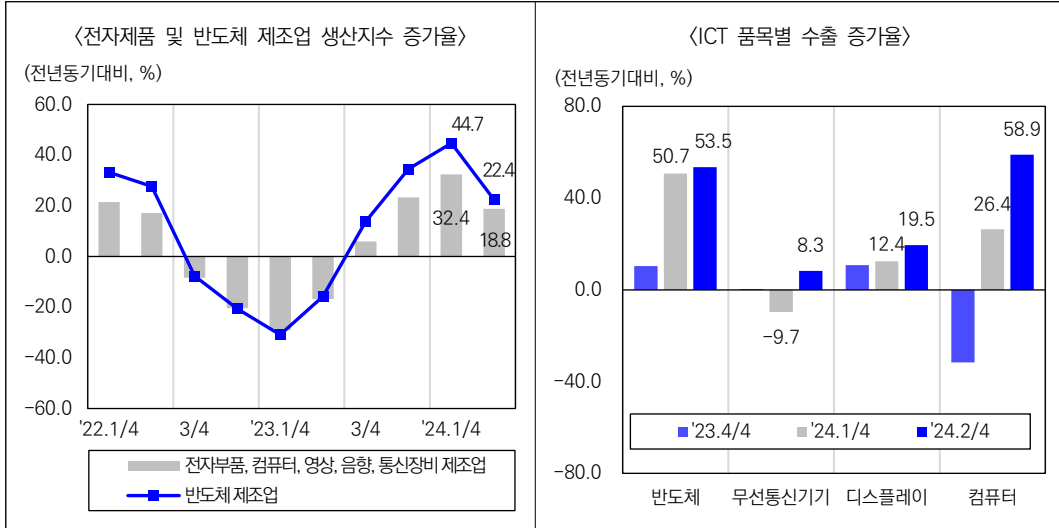


주: 1) (좌) 실질 GDP 금액(월계열) 기준(2020=100)이며, 2024년 2분기는 속보치 자료임.
 2) (우) 총수출 월별 자료를 합산하여 분기자료로 변환한 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계산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관세청, 「무역통계」.

제조업과 자동차 제조업 정도이다. 식료품 제조업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제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 제조업 고용은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증가폭은 완만하게 축소되고 있다. 한편, 기계장비, 전기장비, 금속가공제품, 고무·플라스틱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은 전년동월대비 고용이 감소하거나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고용도 상반기 중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지속하였고, 의료용 물질 제조업과 의료, 정밀기기 제조업 고용도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제조업 내에서 고용 비중이 높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지난해부터 고용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종 특성상 전자제품 제조업은 업황 변동에 따른 고용 변동이 적은 편으로, 2024년 상반기 반도체 생산 및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제조업 고용은 부진이 이어졌다. 사업체 종사자는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피보험자도 지난해부터 증가폭이 줄어들어 올해 1분기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최근 1~2천 명대에서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의료용 물질 제조업과 의료, 정밀기기 제조업은 산업이 성장하면서 추세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던 업종이다. 제조업 내 고용 비중은 낮은 편이나 견조한 고용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제조업 고용 감소를 일부 완화하기도 했다. 장기 시계에서 보면 의료용 물질 및 의료, 정밀기기 제조업 고용 성장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 변동 측면에서는 최근 고용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제조업 경기는 비교적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산업 품목이 높은 수출 증가율을 이어가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 증가세도

[그림 15] 전자제품 및 반도체 제조업 생산 증가율(좌), 정보통신산업(ICT) 품목별 수출 증가율(우)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관세청, 「무역통계」.

지속되는 등 하반기 수출은 호조세일 것으로 전망된다(무역협회(2024. 6.), 「2024년 상반기 수출 입 평가 및 하반기 전망」). 제조업 생산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조선업에서의 큰 폭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산업연구원(2024. 5. 30.),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그러나 이런 긍정적 전망에 따라 하반기 제조업 고용도 성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상반기는 제조업 경기 회복에 비해 아쉬운 고용 흐름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업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 개선이 나타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조업 경기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지만, 제조업 고용이 경기에 반응하는 정도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경기 개선에 대한 고용의 민감도 약화는 올해 상반기에만 나타난 특징은 아니다. 2023년에도 제조업 경기 악화에 비해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완만한 둔화세가 나타났던 것을 경험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제조업 경기와 고용 간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제조업 경기 호조가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둔화 흐름에서 반등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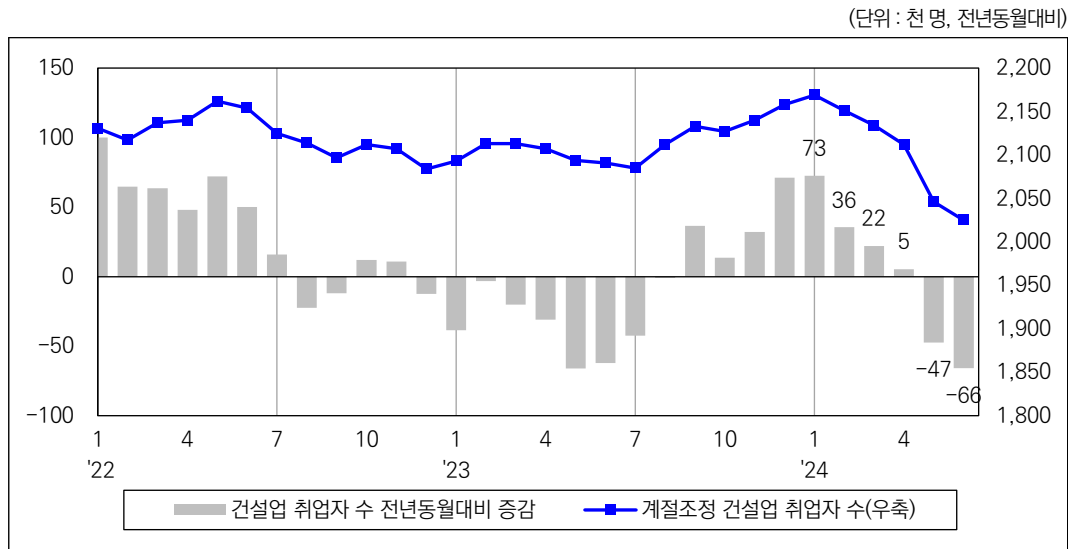
6. 건설업 고용 부진 심화

2024년 건설업 취업자는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만 3천 명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3만 6천 명 감소하였다. 건설업 취업자는 올해 1월 정점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었다(그림 16 참조). 1분기

[특집 II]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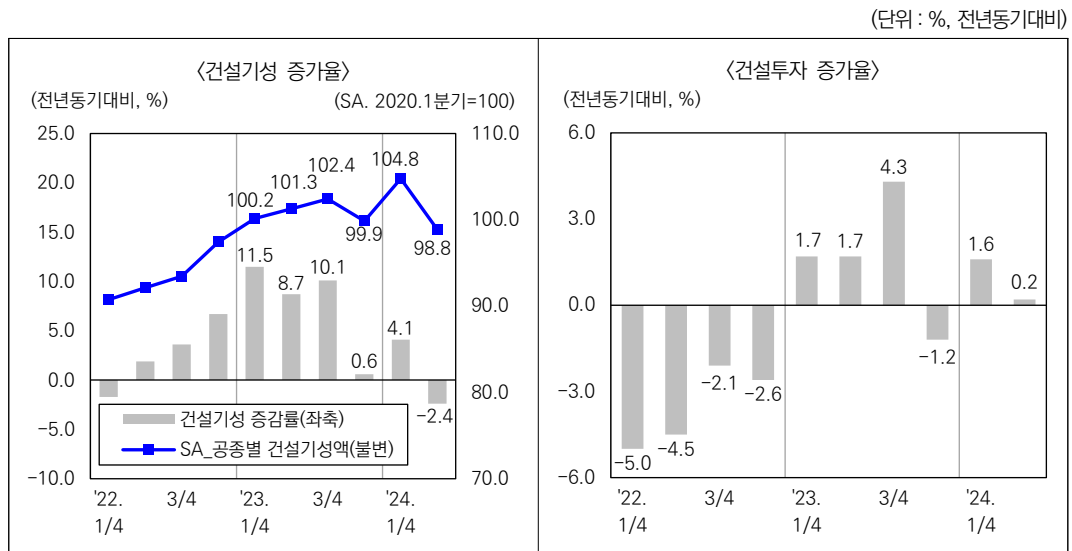
중 매월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2분기에는 매월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계절조정 전월대비 건설업 취업자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하여 6월 건설업 취업자는

[그림 16] 건설업 취업자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17] 건설기성과 건설투자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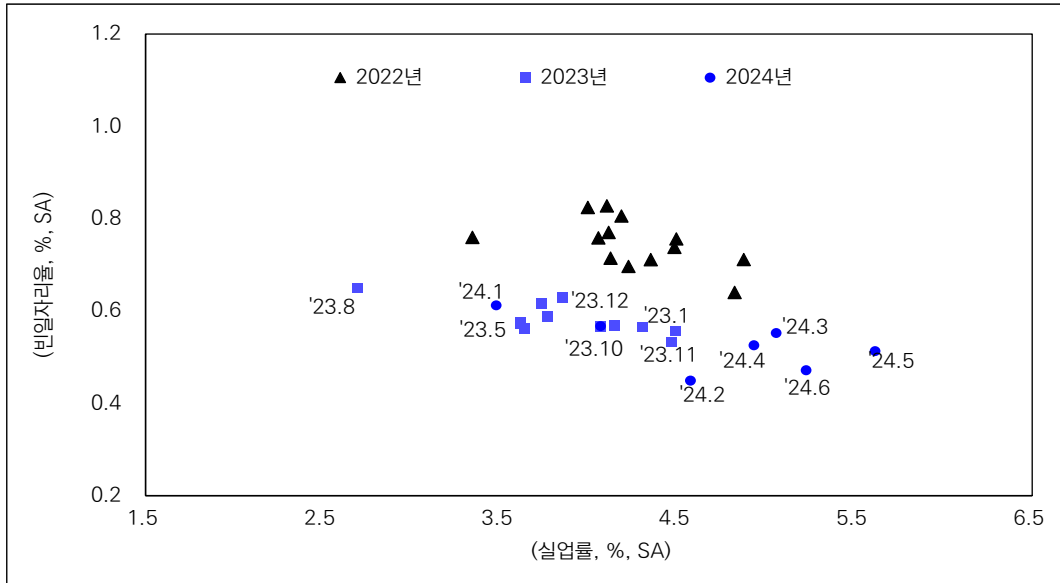


주: 1) 건설기성은 불변가격 기준.
 2) 건설투자는 실질 GDP(원계열) 금액 기준(2020=100)이며 2024년 2분기는 속보치 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1월보다 약 14만 4천 명 적은 수준이다. 한편, 대표적인 건설경기 동행지표들도 2분기 들어 부진한 모습이다. 건설업체들이 실제 공사를 시행한 결과로 수취하는 공사비인 건설기성은 2분기 중 감소로 전환되었고, 건설투자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그림 18]은 건설업 빈일자리율과 건설업 실업률¹⁾ 간 관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베버리지 곡선으로 불리는 이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경기 확장(수축)기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감소)하고 실업률은 하락(상승)하여 곡선상에서 좌측 윗부분(우측 아랫부분)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에서 동근 점이 올해 상반기 건설업 빈일자리율과 실업률을 나타낸다. 상반기 중 건설업 빈 일자리가 줄어들고(상용·임시일용 모두), 실업자도 빠르게 상승하면서 동근 점들이 베버리지 곡선을 따라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건설업의 부진한 고용 상황이 베버리지 곡선에서도 드러난다.

[그림 18] 건설업 베버리지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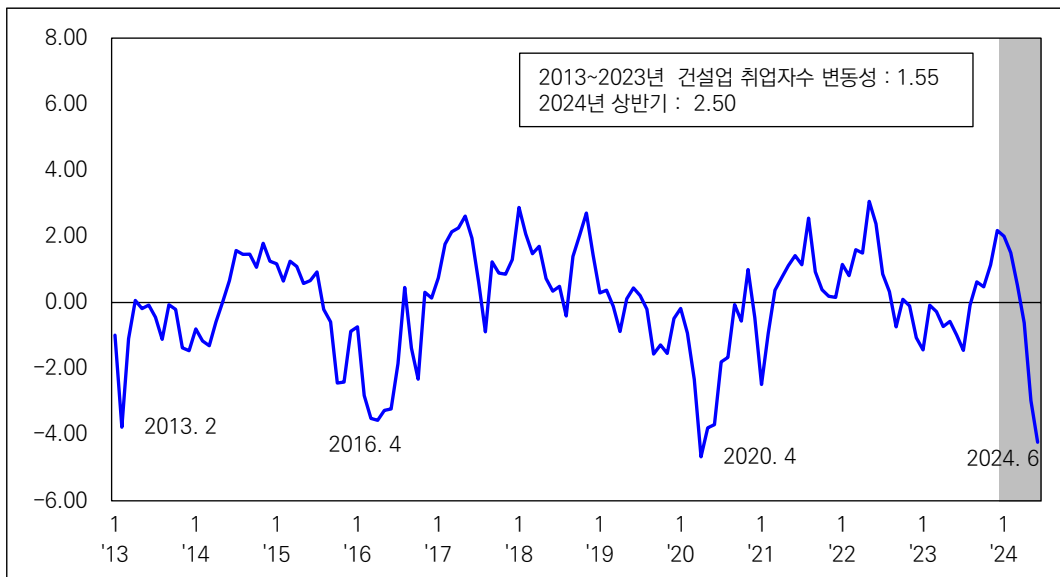
주: 1) 건설업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건설업 실업자 수/(건설업 실업자 수+건설업 취업자 수)*100.
 2) 건설업 빈일자리율 = 사업체 노동력조사의 건설업 빈 일자리 수/(건설업 빈 일자리 수+건설업 근로자(상용, 임시일용))*100.
 3) 건설업 실업률과 제조업 빈 일자리율은 모두 계절조정 자료.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건설업은 비교적 고용 변동이 큰 업종이기 때문에 올해 2분기 건설업 취업자 감소 규모만 보면 최근 발생한 건설업 고용 변화가 특별히 이례적인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

1) 건설업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업자의 이전 직장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가용 자료의 한계로 이전에 건설업에서 종사했던 실업자가 동일 업종인 건설업에서 구직활동을 한다는 가정을 내포하는 한계가 있다.

상반기 건설업 고용 변동에는 이전 기간과 비교되는 특징적인 점이 있다. 건설업 취업자수가 추세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설업 취업자수 순환변동치를 보면(그림 19 참조), 최근 건설업 취업자는 장기 추세를 상당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업 취업자수의 추세 대비 변동폭은 최근 -3%p~-4%p 정도로 확대되었다.²⁾ 건설업 취업자수 순환변동치의 표준편차를 건설업 취업자수 변동성으로 정의하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 변동성은 과거 기간(2013~2023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매년 반기 기준으로 비교해도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수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다.

[그림 19] 건설업 취업자 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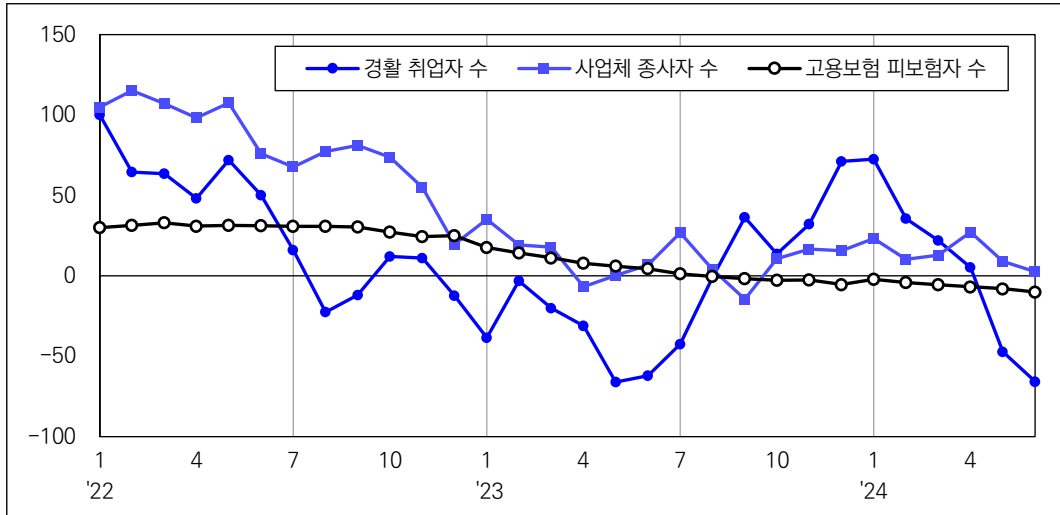
주: 변동성 계산에는 2013년 이후 기간만 포함하였으나 실제 건설업 취업자수 순환변동치 산출에는 2004.1월~2024.6월까지 자료를 이용하였고, 계절조정된 취업자수를 로그 변환한 후 HP필터링을 이용하여 추세를 제거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올해 상반기 고용 변동의 또 다른 특징은 경찰 취업자 감소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도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다(그림 20 참조). 2015년 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건설업 피보험자는 전년동월보다 감소하는 경우가 없었다. 2023년 9월부터 건설업 피보험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이후로는 감소폭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상용직으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사람이기 때문에 건설업 피보험자 감소는 곧 건설업 상용직 감소를 의미한다.

2) 순환변동치 산출에 이용한 HP필터링 방식이 내포하는 끝단치 문제(시계열의 양 끝단 자료에 따라 추세가 변화)로 이후 시계열 자료가 더 축적된 후 순환변동치를 산출하면 현재의 결과와 다소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이를 감안하여도 최근 건설업 취업자수는 추세로부터의 괴리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0] 건설업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통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E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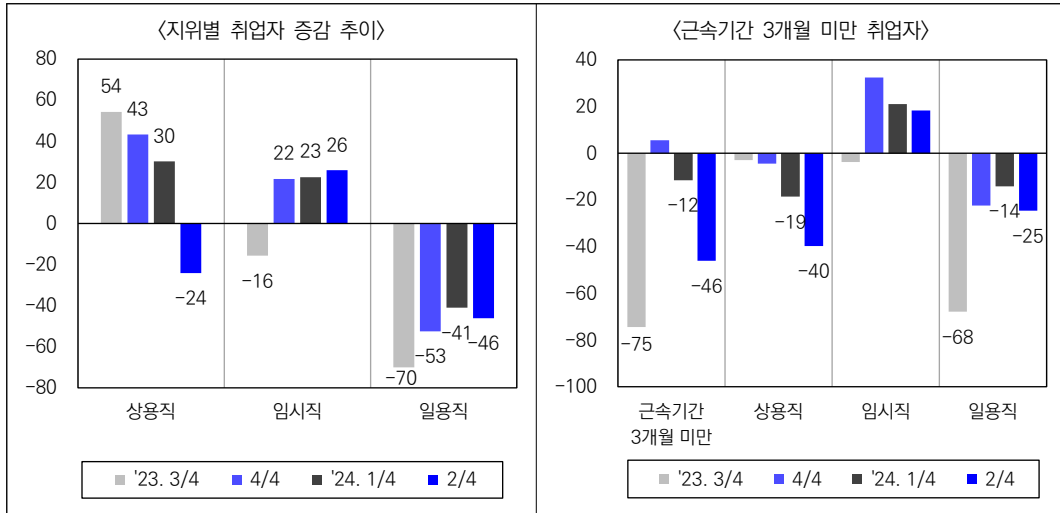
[그림 21]의 왼쪽은 건설업 경할 취업자의 지위별 고용 증감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취업자를 신규 취업자로 가정하여 건설업 신규 취업자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나타나듯 2024년 상반기 건설업은 일용직 취업자 감소에 상용직 취업자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취업자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었다. 또한 과거에 일용직 신규 취업자 증감이 건설업 신규 취업자 증감을 주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올해 건설업 신규 취업자 감소는 상용직 신규 취업자가 감소한 영향도 컸다.

건설업 일용직은 상반기 평균 약 4만 4천 명 감소하였다(기능직과 단순노무직, 50~65세 연령층 감소). 상용직은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만 명 증가하였으나 2분기에는 2만 4천 명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일용직 감소가 2021년 하반기 이후의 일용직 감소세가 지속된 것이라면, 건설업 상용직 감소는 2016년 3월 이후로 처음 나타났다. 건설업 상용직은 추세적인 증가로 2023년 기준 건설업 취업자의 약 45%까지 비중이 확대되었다. 건설업 상용직은 전문직이 약 20%, 사무직이 약 30%, 기능직이 약 35%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데, 최근 건설업 상용직 감소는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 상용직이 감소했는데, 20대는 전문직과 사무직에서, 40대는 기능직에서 주로 감소했다. 한편, 건설업에서 새롭게 취업한 근로자 수는 올해 상반기에 약 3만 명 감소하였는데, 상용직이 약 3만 명, 일용직이 약 2만 명 감소했다. 2022년, 2023년 등 과거 건설업 신규 취업자가 감소했던 시기에 감소분의 대부분이 일용직이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건설업 고용 감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하반기에 건설업

[그림 21] 건설업 임금근로자의 지위별 취업자 증감(좌), 근속기간 3개월 미만 취업자의 지위별 증감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신규 채용이 증가하기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다. 1분기에 감소했던 건설수주액이 2분기에는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기저 영향이 크고, 건축허가면적 같은 건설 경기 선행지표들도 감소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건설 경기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의 건설지표들도 좋지 못한 흐름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건설산업연구원은 2024년 하반기에 건설투자는 감소 전환하고, 건설 수주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7월 말 발표된 대형 건설사 실적은 고금리, 높은 공사비 등으로 인해 대부분 2분기에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상황과 건설 물가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건설업 기업환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건설업 신규 채용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건설업 취업자 감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취업자 증감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되기 때문에 기저 영향이 작용하게 되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설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까지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건설업 취업자는 수치상으로 감소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7.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세 지속

2024년 상반기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20.6만 명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22만 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증가폭(+46.5만 명)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나 음식숙박업(2023년 상반기 +16.4만 명 → 2024년 상반기 +2.6만 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23년 상반기 +17.3만 명 → 2024년 상반기 +8.9만 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

을 제외하면 대체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 여성 서비스업 취업자는 23.3만 명이 증가하여 오히려 전체 취업자 증가폭보다 높았고, 여성 중심의 고용 증가가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표 7〉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반기			분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서비스업 전체	465	323	206	302	258	154
- 도소매업	-54	-20	-29	6	-4	-54
- 운수창고업	-30	9	55	30	60	49
- 음식숙박업	164	65	26	25	-1	52
- 정보통신업	54	59	64	72	65	64
- 금융보험업	13	4	-4	7	-14	6
- 부동산업	-11	-25	-19	-30	-23	-15
- 전문과학기술	73	66	55	71	83	27
- 사업서비스업	-4	20	-51	17	-39	-64
- 공공행정	25	25	50	32	74	27
- 교육서비스	10	-22	-37	-45	-23	-52
- 보건 및 복지	173	114	89	94	75	102
- 예술, 스포츠, 여가	37	23	11	27	12	10
- 협회, 기타개인	15	6	-3	-5	-8	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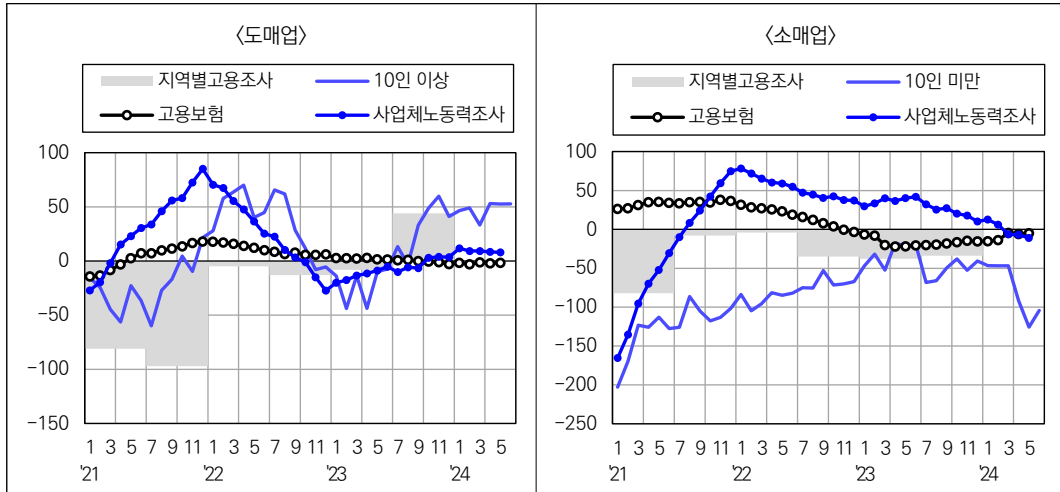
먼저 도소매업은 2024년 상반기 취업자가 2.9만 명 감소했는데, 작년보다 취업자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직종별로 판매직 취업자가 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 청년층과 30대 취업자가 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3년의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특징과는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도소매업 중에서 도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소매업으로 볼 수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가 2024년 상반기에 7.7만 명 감소하는 동안, 도매업으로 볼 수 있는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는 4.8만 명이 증가하였다. 그 외 중분류 업종별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 2023년 하반기에 도매업 취업자가 4.4만 명이 증가하고, 소매업 취업자는 3.4만 명 감소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사업체노동력조사 또한 도매업에서 1만 명 증가하고, 소매업에서 1만 명 감소하고 있어 대부분 자료에서 도매업은 회복하고 소매업은 부진한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집 II]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운수창고업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감소하면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던 업종이다. 그러나 2023년 10월부터 취업자가 다시 증가하게 되었고 2024년 들어서도 고용이 증가하

[그림 22] 자료 원천별 도매업, 소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표 8> 부문별 운수창고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반기			분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운수창고업 전체		-30	9	55	30	60	49
종사상 지위	상용직	-7	21	37	31	38	37
	임시일용	-28	-11	14	0	10	18
	자영업	5	-2	3	-1	12	-6
성별	남성	-13	23	36	37	45	26
	여성	-17	-14	19	-7	14	23
직종	단순노무직	-2	-30	-6	-27	-4	-7
	관리전문사무	-4	22	23	31	31	14
	기능, 조작조립	-19	24	40	34	39	41
연령대	15~49세	-21	-33	-15	-24	-8	-22
	50세 이상	-10	42	69	54	68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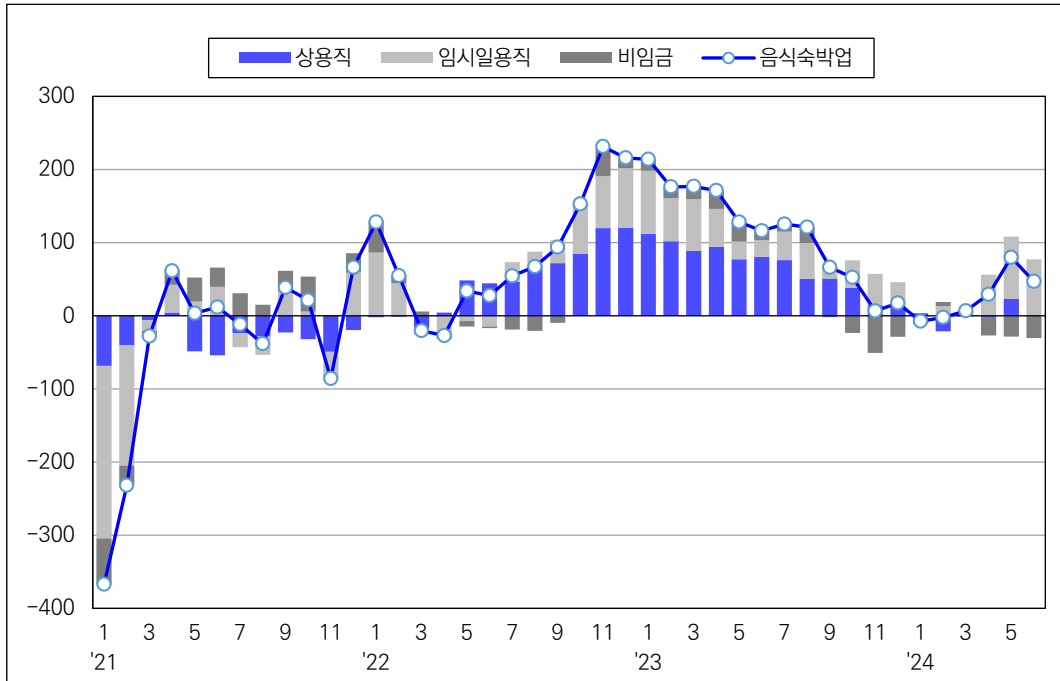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2024년 상반기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5.5만 명 증가하였다. 비대면 소비가 활발했던 2023년 이전과 비교해보면, 비교적 상용직 취업자의 비중이 높고,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배달, 화물분류 등)보다 운전 및 운송 관련 기계조작 직종(택시, 버스, 선박 및 항공 운전원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음식숙박업은 2023년 하반기 이후 취업자 증가가 둔화되었다. 2024년에도 고용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24년 2분기에 5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다시 고용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4년 2분기 기준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임시직으로 2분기 기준 7.3만 명이 증가하였다. 자영업자는 고용원 여부와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고, 상용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2~2023년 취업자가 증가했을 시기에 상용직 증가 비중이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20~30대, 성별로 여성의 비중이 높고, 직종별로 가사·음식 서비스직이 아닌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아 고용 증가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언제든지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며 하반기 노동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림 23] 종사상 지위별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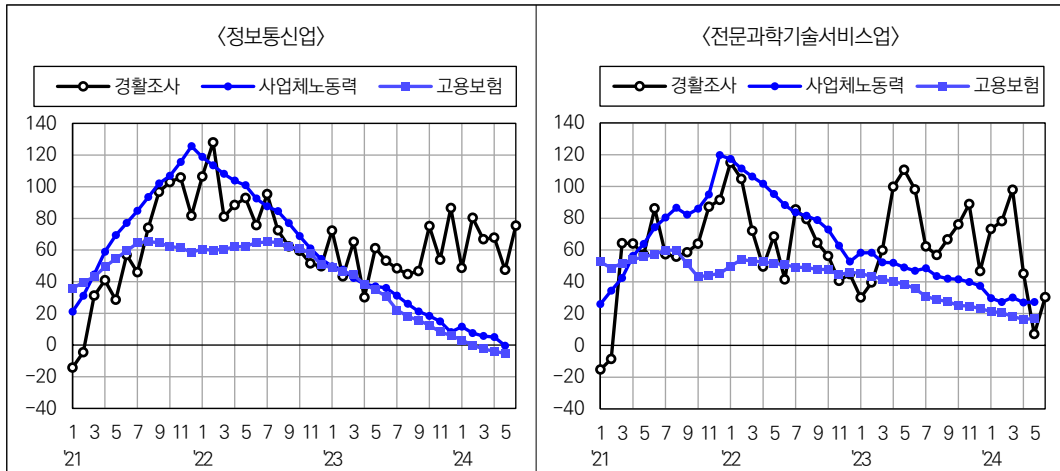
8. 정보, 전문과학 분야의 고용 상승세 지속

비대면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으로 2024년 상반기에도 좋은 고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업은 2024년 상반기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6.4만 명 증가하면서 2023년 증가폭(+5.7만 명)에 이어 고용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24년 상반기에 5.5만 명이 증가했는데 2023년 증가폭(+7.0만 명)에 비해 둔화된 모습이다.

정보통신업³⁾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⁴⁾은 2021년 고용이 회복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2022년 1분기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폭이 둔화하는 모습까지 경찰조사, 사업체 노동력조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료 세 가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에서 정보통신업은 1만~2만 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만~3만 명까지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경찰조사는 취업자가 2024년 상반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고용보험 자료가 아닌 경찰조사에서 증가하고 있는 취업자가 고용안정성이 낮은 임시직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면, 하반기 이후의 고용 전망은 불안정한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그림 24] 자료 원천별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 3) 2024년 상반기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109만 명,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80.5만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79.4만 명으로 두 자료 모두 경찰조사 대비 80%를 차지하고 있다.
- 4) 2024년 상반기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140.2명,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131.4만 명,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97.9만 명이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하 사업서비스업) 취업자는 2024년 상반기에 5.1만 명이 감소하였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7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2분기 취업자는 6.4만 명이 감소하여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취업자 감소를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고, 40, 50대 중장년층 연령대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전업 취업자가 20만 명 이상 감소하고,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사업서비스업은 중장년층 이상 연령대의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업종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용 부진은 사업서비스업 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 감소로 보이며, 하반기에도 취업자 감소가 이어질 것이다.

〈표 9〉 부문별 사업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반기			분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사업서비스업	-4	20	-51	17	-39	-64	
종사상 지위	상용직	-25	26	1	38	6	-5
	임시직, 일용직	8	1	-28	-6	-22	-34
	자영업자	13	-7	-24	-14	-22	-26
성별	남성	-2	40	-29	38	-12	-46
	여성	-3	-19	-23	-20	-26	-19
연령대	15~39세	-14	-2	3	28	27	13
	40~59세	-16	-3	-58	-2	-54	-62
	60세 이상	26	25	4	27	20	-12
직종별	관리, 전문, 사무	-4	18	10	21	12	8
	단순노무직	-13	-26	-44	-27	-42	-46
주당 근로시간	0~14시간	11	-10	-9	-18	-9	-8
	15~35시간	2	-138	173	-134	173	173
	36시간 이상	-17	168	-216	169	-202	-2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9. 사회서비스업의 고용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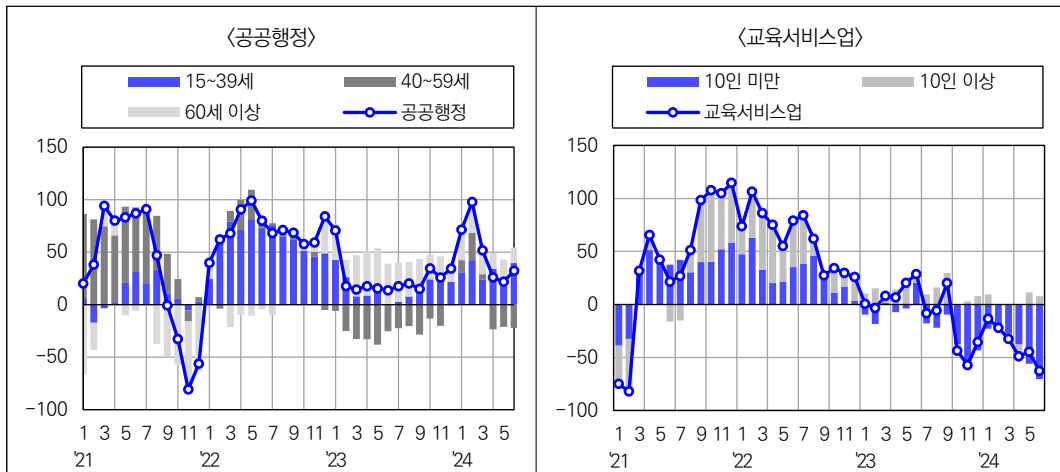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24년 이후 업종마다 고용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공공행정은 2024년 상반기에 취업자가 5만 명 증가했는데 2023년(+2.5만 명)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공공행정은 코로나19 시기 공익활동,

자활사업 등 직접일자리 공급을 통해 40, 50대 취업자를 중심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40대 미만의 비교적 젊은 연령대 중심의 일자리, 2023년부터 현재까지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재정지원에 따라 일자리가 공급되는 공공행정의 업종 특성상 일자리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취업자 증가폭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서비스업은 2024년 상반기 취업자가 3.7만 명 감소하면서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용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용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 10만 명 내외의 고용 감소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원의 운영이 제한되면서 발생하였다. 2021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고용이 회복되었지만, 그 이상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현재는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의 고용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수요감소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감소하는 취업자의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 대규모 학원보다는 소규모 학원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고, 종사상 지위별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감소하고 있어 개인과외, 교습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아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5] 연령대별 공공행정, 종사자 규모별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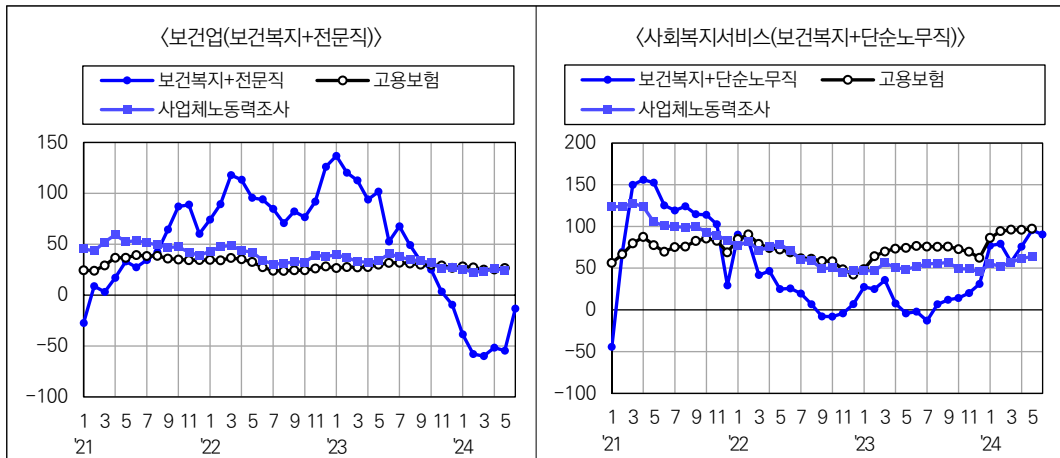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024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8.9만 명이 증가하였다. 전체 서비스업 중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이지만, 지난 4년 동안 매년 10만~20만 명 사이의 취업자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약 9만 명의 취업자 증가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건업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업종 내에서 단

순노무직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직과 일용직, 연령대별로 60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대표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전문직 취업자가 2024년 들어 5만 명 감소하였고, 청년층과 상용직 취업자도 작년에 비해 고용이 감소하면서 보건업에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건업의 고용 부진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보건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기준으로 취업자는 2~3만 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경기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발생하는 업종과 달리 보건업은 간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매년 꾸준한 규모로 공급되기 때문에 매년 일정한 고용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경찰조사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전문직 취업자가 감소한 이유는 2022~2023년에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된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중 전문직 취업자의 감소폭이 최근 다시 줄어들고 있으므로 경찰조사에서 보건업의 감소는 장기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 26] 자료 원천별 보건 및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EIS).

Ⅲ. 2024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

올해 노동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 우리 원과 KDI,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전망기관들의

기본 견지는 유사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 등 경기 하방 요인은 상존하겠지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평균 24만 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를 전망했었다. 본원 역시 지난해 12월, 2024년 상·하반기 각각 25만 명과 26만 명, 연간으로는 25만 7천 명 수준의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1분기까지는 이러한 전망이 대체로 실현되는 듯했으나, 2분기 들어서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5월을 시작으로 6월까지 2021년 3월 이후 근 3년 만에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 이하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된 노동시장의 회복세가 크게 꺾인 것이다.

최근 두 달간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취업자 증가폭은 기존의 전망 수치를 달성하는 데 있어 일정 수준 회의적 시각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아래에서는 현재까지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실적치,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고용 전망의 근거로 삼은 전제 요건에 큰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2024년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약 182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본원이 제시한 전망치인 257천 명에서 75천 명 하회하는 수치로, 상반기 실현치 및 하반기 수정 전망치인 144천 명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표 10〉 2024년 하반기 및 연간 고용 전망

(단위: 천명, %)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취업자	28,230	28,603	28,416	28,449	28,747	28,598
(증가율)	1.3	1.0	1.2	0.8	0.5	0.6
(증감수)	372	283	327	220	144	182
실업률	3.0	2.4	2.7	3.1	2.6	2.9
고용률	62.2	62.9	62.6	62.5	63.0	62.8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분기 중에 급감한 취업자 증가폭은 건설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부진에서 기인한 바가 크며,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고용은 신규공사 위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 인한 업황 부진으로 건설투자 위축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간 고용회복세를 견인해 온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 전망 역시 밝지 않다. 고령층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의료파업의 여파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 역시 기존의 전망 수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대면 서비스업 역시 고금리 기조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금리에 반영되면서 실질구매력을 하락시키고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실현되지 않는 이상 부진한 상황에서 쉽 리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지난 6월 반도체 수출액이 전월대비 무려 50.9% 증가한 134.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인공지능(AI) 서버용 고부가 메모리 제품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전방산업 전 품목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간 제조업 고용이 경기동행적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근 특별한 경기변동 양상이 관측되지 않는 가운데, 지난 5월과 6월에 10만 명 이하로 급감한 취업자 증가폭을 고려한다면, 하반기 전망 수치인 144천 명 달성을 위해서는 월간 5만 명 수준의 취업자 반등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상당 수준 감소한 취업자 증가폭에도 불구하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5월에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조사주간 중 휴일(석가탄신일)이 포함되었고, 6월에는 이른 폭염이 발생하는 등 일시적 요인이 취업자 증가폭을 일부 제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7월 이후 하반기 고용 상황에 해당 수준의 반등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 추세를 보이는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근접할 경우, 소득여건이 개선되면서 추가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 고용 증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외여행객 입국자 수, 카드승인액 등 내수지표들의 개선 추세도 향후 고용 반등을 전망케 하는 요인이다.

다만, 거시경제적 하방 위험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8월 초 글로벌 랠리를 주도해온 인공지능(AI) 붐에 대한 회의로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용지표마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이른바 ‘검은 금요일(black friday)’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을 경험했듯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고용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 흐름이 민생 개선과 고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장주도 산업의 국내 산업연관을 확대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업 등 고용 부진이 예상되는 업종 근로자의 전직지원 및 생계안정 등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업종·계층별 고용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KL**

[특집 II]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부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p, 전년동기대비, 전년대비)

		연도		반기			분기		
		2022	2023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3 4분기	2024 1분기	2024 2분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5,260	45,407	45,368	45,446	45,533	45,478	45,523	45,544
	(증감)	(180)	(147)	(141)	(152)	(165)	(161)	(165)	(166)
	취업자	28,089	28,416	28,230	28,603	28,449	28,518	28,060	28,839
	(증감)	(816)	(327)	(372)	(283)	(220)	(303)	(294)	(146)
	(남성 증감)	(381)	(24)	(28)	(20)	(19)	(39)	(61)	(-23)
	(여성 증감)	(436)	(303)	(344)	(263)	(201)	(264)	(233)	(169)
	고용률	62.1	62.6	62.2	62.9	62.5	62.7	61.6	63.3
	남성	71.5	71.3	71.1	71.6	70.8	71.4	70.2	71.4
	여성	52.9	54.1	53.7	54.5	54.4	54.3	53.3	55.4
	실업자	833	787	859	715	917	749	960	875
	실업률	2.9	2.7	3.0	2.4	3.1	2.6	3.3	2.9
	남성	2.7	2.6	2.9	2.4	3.1	2.5	3.2	3.1
여성	3.1	2.8	3.1	2.4	3.1	2.6	3.5	2.8	
비경제활동인구	16,339	16,204	16,279	16,129	16,167	16,210	16,503	15,830	
(증감)	(-432)	(-134)	(-154)	(-115)	(-113)	(-150)	(-171)	(-55)	
15~ 64세	생산가능인구	36,233	35,956	36,033	35,879	35,715	35,846	35,766	35,663
	(증감)	(-265)	(-278)	(-275)	(-280)	(-318)	(-283)	(-305)	(-331)
	고용률	68.5	69.2	68.9	69.6	69.3	69.5	68.8	69.8
	남성	76.9	76.9	76.6	77.2	76.7	77.1	76.3	77.1
	여성	60.0	61.4	61.0	61.8	61.7	61.8	61.1	62.4
취업자	24,824	24,891	24,820	24,963	24,758	24,926	24,618	24,899	
(증감)	(544)	(68)	(81)	(54)	(-61)	(68)	(36)	(-15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2〉 연령별 주요 고용지표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연도		반기			분기		
		2022년	2023년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024년 2분기
15~29세	인 구	-203	-177	-182	-172	-232	-173	-222	-241
	취업자	119	-98	-103	-92	-115	-74	-92	-137
	실업률	-1.4	-0.5	-0.5	-0.5	0.0	-0.2	-0.3	0.4
	고용률	2.4	-0.1	-0.2	-0.1	-0.1	0.0	0.2	-0.3
30대	인 구	-124	-73	-90	-55	0	-46	-9	8
	취업자	46	54	37	71	91	84	82	99
	실업률	-0.6	-0.1	-0.1	-0.1	0.2	0.0	0.4	0.1
	고용률	2.0	1.6	1.6	1.7	1.3	1.8	1.3	1.3
40대	인 구	-80	-121	-110	-133	-145	-139	-139	-152
	취업자	3	-54	-51	-56	-82	-50	-61	-103
	실업률	-0.4	-0.1	-0.1	-0.1	0.1	-0.1	0.0	0.3
	고용률	0.8	0.5	0.4	0.6	0.4	0.8	0.6	0.2
50대	인 구	32	12	4	19	71	32	59	83
	취업자	196	59	68	50	43	40	71	15
	실업률	-0.9	0.0	-0.1	0.1	0.2	0.2	0.1	0.2
	고용률	2.0	0.6	0.8	0.4	-0.1	0.2	0.3	-0.6
60세 이상	인 구	555	507	519	494	472	487	476	467
	취업자	452	366	421	310	282	302	293	272
	실업률	-1.0	-0.2	-0.8	0.2	0.3	0.2	0.4	0.3
	고용률	1.6	1.0	1.4	0.6	0.5	0.6	0.6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